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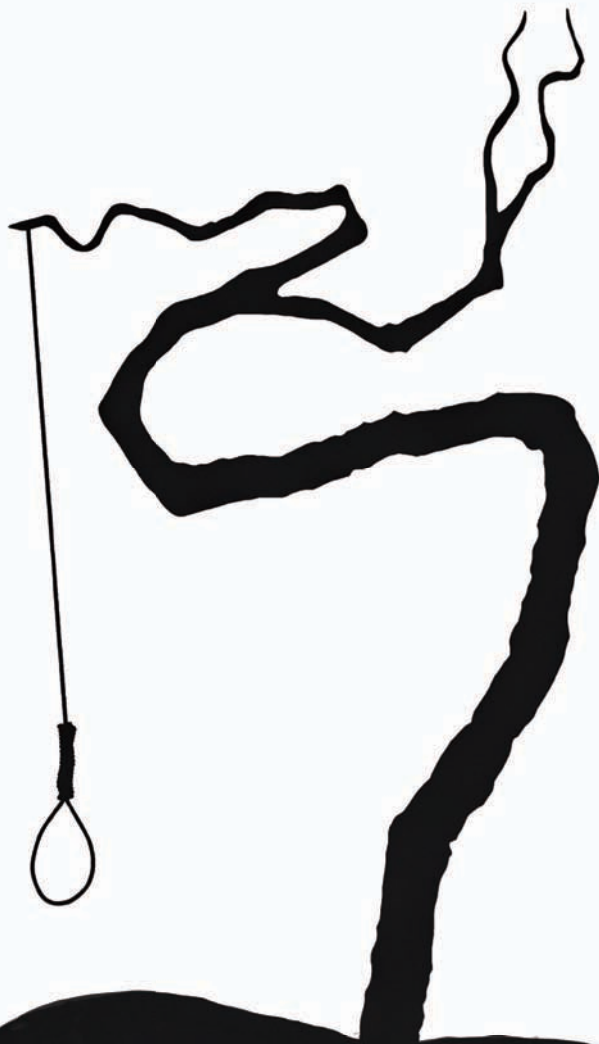


국립극단



국립극단

국립산울림 50
1969-2019



임영웅 연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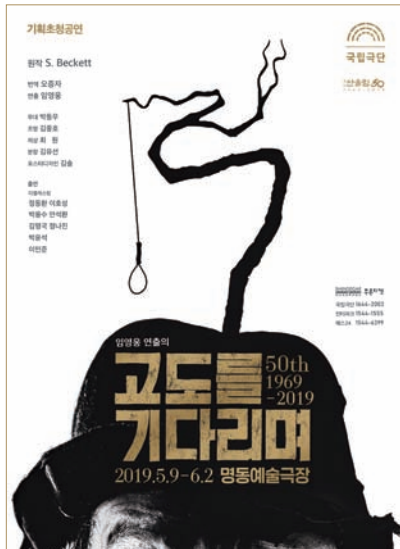
고도를 기다리며 50th 1969-2019

국립극단·극단 산울림 -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

원작 사뮈엘 베케트 Samuel Beckett

연출 임영웅

번역 오증자



일정

2019년 5월 9일(목) - 6월 2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극단 산울림

주최

(재)국립극단

연출의 글	50년 동안 함께 고도를 기다려온 모든 분께	2
작가 소개		4
줄거리		6
출연진		8
작품 이해돕기—1	공연 연보 및 역대 출연진	12
작품 이해돕기—2	역대 해외공연 리뷰	14
작품 이해돕기—3	임영웅과 〈고도를 기다리며〉의 시간 ■ 김남석	16
작품 이해돕기—4	연극에의 순교자,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 이영석	19
연습스케치		22
스태프 프로필		24
만드는 사람들		25



1969년에 처음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린 후, 어느새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초연 때의 긴장과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새롭는데,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며>는 일생의 동반자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대를 빛내준 훌륭한 배우들과 변함없이 이 작품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보내준 관객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고도를 기다려온 모든 분께

특히나 이번에는 1973년 이후 다시 명동예술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올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기념의 자리를 만들어 준 국립극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고도’가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좋은 연극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늘 기다려왔습니다. 물론 아직 안 왔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꾸준히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은 연출가 개인의 보람이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함께 고도를 기다려준 모든 분께도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영웅

연출가 | 現 극단 산울림 대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위기의 여자>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외 다수

뮤지컬 <살짜기 읊서예> <지붕 위의 바이올린>
<키스 미 케이트> <캠블러> 외 다수

수상 2016 금관문화훈장
2007 제 1회 더뮤지컬 어워즈 공로상
2000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1998 대통령표창
1995 제 4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연극 부문
1986 동아연극상 연출상
1982 서울연극제 연출상
1969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연출상



© Roger Pic

사뮈엘 베케트

Samuel Barclay Beckett
1906.4.13.~1989.12.22.

※ 참고자료

「사뮈엘 베케트의 말없는 삶」_위크루프프레스

「베케트에 대하여」_민음사

「고도를 기다리며/몰로이/첫사랑」_동서문화사

위키피디아 영문 홈페이지

20세기 현대연극의 새로운 패러다임중 하나인 부조리극(Theatre of the Absurd)을 대표하는 희곡 작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희곡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소설, 시, 희곡, 평론, 라디오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연극 연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활동을 한 예술가였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더불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5인으로 손꼽힌다. 비록 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초기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집필했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문제나 습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기 위함이었다.

1906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고등사범학교인 애콜 노르말 쉬페리외르(École Normale Supérieure)에서 공부했다. 졸업한 직후, 모교인 고등사범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나중에 아일랜드로 돌아와서는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활동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군에 점령된 후, 베케트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입하여 저항운동을 하였다. 그 공로로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무공 십자훈장(the Croix de guerre)과 레지스탕스 훈장(the Médaille de la Résistance)을 받았다. 1945년 파리에 돌아와 완전히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이후 프랑스어로 쓴 3부작 소설 「몰로이」(Molloy) 「말론 죽다」(Malone meurt) 「이름 붙일 수 없는 자」(L'innommable)을 통해 소설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를 통해 프랑스 문단과 연극계에서 동시에 호평을 받았다. 1961년에는 구두점이 없는 산문 「어떤 식으로 그것이」(Comment c'est)를, 1963년에는 「아! 아름다운 나날」(Happy Days)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작품들을 통하여 기존의 연극 개념을 뒤엎는 독창적인 희곡을 발표하며 새로운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특히 세계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극히 인상적인 언어로써 허무하게 묘사하고 있다.

1969년 “새로운 소설과 희곡 형식으로 고도를 얻으려는 현대인의 궁핍함을 다룬 저작을 높이 평가며 상을 수여한다.”는 수상평과 함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1989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쉬잔 뒤메닐(Suzanne Dechevaux-Dumesnil)이 죽은 뒤 그 역시 오래지 않아 부인의 곁으로 떠나며 생을 마감했다.

1906	▪ 4월 13일 더블린 근교 폭스로크에서 출생
1923	▪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입학,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전공
1927	▪ 트리니티 칼리지 수석 졸업
1931	▪ 평론「프루스트(Proust)」출판
1938	▪ 영어로 쓴 소설「머피(Murphy)」를 출판하였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함.
1940	▪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자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입하여 활동함.
1945	▪ 「첫사랑(Premier Amour)」발표
1948	▪ 3부작 소설 중 「몰로이(Molloy)」 「말론 죽다(Malone meurt)」 집필 ▪ 희곡「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집필
1949	▪ 「이름 붙일 수 없는 자(L'innommable)」 집필
1950	▪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한 텍스트(Textes pour rien)」 집필
1953	▪ 1월 5일 몽파르나스 바빌론 소극장(Théâtre de Babylone)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초연
1954	▪ 희곡「고도를 기다리며」영문판이 뉴욕에서 출간됨
1955	▪ 연극〈고도를 기다리며〉런던과 더블린에서 공연
1956	▪ 연극〈고도를 기다리며〉미국 초연
1957	▪ 연극〈승부의 끝(Fin de Parties)〉〈무언극(Acte sans Paroles)〉 초연
1959	▪ BBC 라디오 방송에서 「타다 남은 불(Embers)」 방송
1961	▪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반자 쉬잔 뒤메닐과 결혼 ▪ 프랑스 오데옹 극장(Théâtre Royal de l'Odéon)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재공연 ▪ 국제출판인상 수상(International Publishers' Formentor Prize)
1964	▪ 영화「Film」의 시나리오를 집필, 이후 알랜 슈나이더 감독에 버스터 키튼 주연으로 영화화
1967	▪ 직접 연출을 맡아 연극〈승부의 끝〉베를린 공연
1969	▪ 건강악화로 북아프리카에서 요양하던 중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상을 수상하긴 하였으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음.
1972	▪ 연극〈나는 아니야(Not I)〉 초연
1977	▪ BBC 방송국에서 「유령 트리오(Ghost Trio)」 방송 ▪ 영국에서 베케트 시집을 발표
1979	▪ 연극〈독백 한 마디(A piece of monologue)〉 공연
1981	▪ 연극〈자장가(Rockaby)〉〈오하이오 즉흥곡(Ohio Impromptu)〉 초연 ▪ 독일에서 TV 드라마「쿼드(Quad)」 방송
1983	▪ TV 드라마「밤과 꿈(Nacht und Träume)」 방송
1989	▪ 7월 부인 쉬잔 사망 ▪ 12월 22일 베케트 사망함.



시골길, 앙상한 나무가 한 그루 서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그 나무 아래에서 블라
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실없는 수작과 부질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도’를 기다
리고 있다. 이어서 포조와 그의 짐꾼 릭키가 등장하여 많은 시간을 메운다. 그리
고 그 기다림에 지쳐 갈 때쯤 한 소년이 등장하여 말한다. ‘고도씨는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은 꼭 오시겠다고 전하랬어요.’ 이렇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혹은 내
일인지 모르는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Under a bare tree.

Two people are waiting for “Godot”.

They don’t know who Godot is and why they are waiting for him.

At times, this story, which is both a comedy and tragedy,

will cast a question upon you.

What is your “Godot”?



정동환 Chung Dong Hwan

블라디미르 Vladimir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7 | 대신문관 외 3역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단테의 신곡〉 13 | 베리길리우스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오이디푸스〉 11 | 크레온 | 명동예술극장
 〈고관의 선물〉 03 | 담슨 | 동숭아트센터
 〈레이디 맥베스〉 99 | 맥베스 | 문예회관소극장
 〈햄릿〉 77 | 햄릿 | 유관순기념관
 〈마의 태자〉 75 | 태자 | 명동예술극장
 외

수상

1997 서울연극제 연기상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2009 이해랑 연극상
 2016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외



이호성 Lee Ho Seong

블라디미르 Vladimir

연극

〈시련〉 15 | 댄포스 | 명동국립극장
 〈혈맥〉 15 | 털보 | 명동예술극장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13 | 아저씨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황금용〉 12 | 일인 다역 | 게릴라 소극장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10-11 | 이영호 | 소극장 산울림
 〈세자매〉 02 | 베르쉬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갈매기〉 10 | 도른 | 명동예술극장
 〈갈매기〉 08 | 쏘린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외

영화

〈초록물고기〉 〈황산벌〉 〈해바라기〉 외

수상

1992 I.T.I 영화 연극상
 1993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1994 동아연극상 연기상
 외



박용수 Park Yong Soo

에스트라공 Estragon

연극

〈복사꽃지면 송화 날리고〉 17 | 아버지 |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14 | 감독 | 명동예술극장
 〈사라지다〉 12 | 말복 | 남산예술센터
 〈아워타운〉 12 | 김스의사 | 명동예술극장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12 | 이예림 조부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외

드라마

〈토지〉 〈복면검사〉 〈가면〉 외

영화

〈여고괴담〉 〈한반도〉 〈제보자〉 〈노리개〉 외

수상

2005 제31회 영화연극상
 2011 제32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2 제48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안석환 Ahn Seok Hwan

에스트라공 Estragon

연극

〈킹 리어〉 17 | 리어 | 용 극장
 〈맥베드〉 16 | 맥베드 | 아시아문화전당 대극장
 〈올드 위키드 송〉 14 | 보컬 코치 | 동숭아트센터 대극장
 〈시라노 드 베르주락〉 10 | 시라노 | 명동예술극장
 〈웃음의 대학〉 08 | 검열관 | 동숭아트센터 대극장
 〈노이즈 오프〉 06 | 연출 | 동숭아트센터 대극장
 〈리처드 3세〉 05 | 리처드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아트〉 03 | 문방구 | 동숭아트센터 대극장
 〈남자 충동〉 97 | 장정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이 세상 끝〉 96 | 두목, 아들, 할아버지 | 바탕골 소극장 외

영화

〈넘버3〉 〈하면 된다〉 〈26년〉 〈닥터K〉 외

드라마

〈꽃 보다 남자〉 〈캐럴 춘향〉 〈캐도 홍길동〉 〈닥치고 패밀리〉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조선 총잡이〉 〈각시탈〉 외

수상

1996 42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1997 43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자상
 1998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예술가상,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자상
 1999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자상
 2005 KBS 드라마 연기 조연상
 2006 탈렌트협회 코미디 연기상



김명국 Kim Myung Kook

포조 Pozzo

연극

〈행복을 찾아서〉 18 | 한길로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분의7〉 11 | 아버지 | 동양예술극장 2관
 외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07 | 에드나 | 충무아트홀

영화

〈아빠는 예쁘다〉 〈특별수사 사령수의 편지〉 〈웨딩드레스〉
 〈와일드 카드〉 〈약속〉 외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비밀의 문〉 〈기황후〉 〈울랄라 부부〉
 〈닥터 진〉 〈해를 품은 달〉 〈연개소문〉 〈내 사랑 내 곁에〉 외

수상

2017 CINEMAFEST-Gold-feature 수상(미국)
 2017 London Labour Film Festival 최우수작품상(영국)
 2017 Formosa Festival Of International Filmmaker Awards
 대상, 감독상(대만)
 2018 Out&Loud-Pune International Queer Film Festival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인도)



정나진 Jung Na Jin

포조 Pozzo

연극

〈이방인〉 18 | 레이몽 | 소극장 산울림
 〈말뚝의 눈물〉 18 | 황근석 | 백성희장민호극장
 〈닭꾸우스〉 18 | 다이다이박사 | 나온씨어터
 〈유랑 억척어멈〉 17 | 양씨 | 민송아트홀
 〈조치원 해문이〉 15 | 남명열 | 백성희장민호극장
 〈나, 왔어요...엄마〉 13 | 아키오 | 소극장 산울림
 〈적도 아래의 맥베스〉 10 | 박남성 | 명동예술극장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10 | 필립 | 명동예술극장
 〈열하일기 만보〉 07 | 창대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외

드라마

〈해치〉 〈보이스 시즌2〉 〈국민여러분〉 〈리갈하이〉 〈구암 허준〉 〈동이〉
 〈화유기〉 〈두번째 스무살〉 〈뿌리깊은 나무〉 〈기황후〉 외



박윤석 Park Yun Seok

럭키 Lucky

연극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18 | 마틴 | 나온씨어터
 〈요정의 왕〉 18 | 요정 외 | 프로젝트 박스 시아
 〈로드씨어터 대학로2〉 17 | 퍼포머 | 대학로 일대
 〈이방인〉 17 | 살라나모 노인 외 | 소극장 산울림
 〈짜지르는 것들〉 16 | 아이젠링 | 서강대학교 메리홀
 〈Enden in chains〉 16 | 경찰관 | 인천 아트플랫폼
 〈마리아와 함께 아아아아〉 15 | 닥터 하드크로프트 | 혜화동 일번지 소극장
 〈반야삼촌〉 15 | 교수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이런 꿈을 꾸었다〉 14 | 노인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외



이민준 Lee Min Jun

소년 A Boy

연극

〈엄마〉 15 | 아들 | 그라운드 씬

영화

〈모래성〉 〈파랑새〉 〈작은 고집〉 〈언더더씨〉 〈두근두근 내 인생〉

공연 연보 및 역대 출연진

1회



1969. 12. 17-12. 23

한국일보 소극장

김성옥 함현진 김무생
김인태 이재인

2회



1970. 10. 3-10. 12

한국일보 소극장

김성옥 함현진 김무생
김인태 이재인

3회



1973. 5. 31-6. 4

국립극장
(現 명동예술극장)

김성옥 함현진 김무생
김인태 윤정배

4회



1985. 3. 9-4. 20

소극장 산울림

전무송 주호성 조명남
김진동 임대성

5회



1988. 9. 6-9. 10

문예회관 대극장

주호성 조명남 이문수
김진동 박지영

6회

1988. 10. 10

단국대학교

주호성 조명남 이문수 김진동 박지영

7회

1989. 7. 24-8. 4

프랑스 아비뇽 아르모니 소극장

전무송 주호성 조명남 김진동 박지영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 참가

8회



1989. 8. 17-9. 24

소극장 산울림

전무송 주호성 조명남
김진동 박지영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 참가
귀국 기념

9회



1990. 9. 14-9. 23

소극장 산울림

정동환 송영창 박용수
정재진 정국진

10회



1990. 10. 1-10. 3

더블린 프로젝트
아트센터

정동환 송영창 박용수
정재진 정국진

*더블린 연극제 초청

11회

1990. 11. 1-12. 2

소극장 산울림

정동환 송영창 박용수 정재진 정국진

*더블린 연극제 참가 귀국 기념

12회



1994. 5. 17-6. 10

소극장 산울림

이호성 송영창 김명국
이재학 홍선용

13회



1994. 6. 17-6. 20

폴란드 그단스크
비브제제 극장

이호성 송영창 김명국
이재학 홍선용

14회

1994. 9. 2-12. 18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안석환 김명국 정재진 김채영

15회



1996. 2. 9-4. 28

소극장 산울림

송영창 안석환 김명국
한명구 이정

16회



1997. 9. 2-11. 2

소극장 산울림

안석환 한명구 김명국
정재진 이정

*세계 연극제 공식 초청

17회



1999. 10. 12-10. 17

문예회관 대극장

안석환 한명구 김명국
정재진 류지호

*제 23회 서울연극제 특별 초청

1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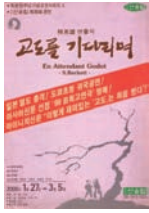
1999. 11. 21-11. 23

일본 동경세션
스기나미홀

안석환 한명구 김명국
정재진 류지호

*스기나미구, 시즈오카 시 초청

19회



2000. 1. 27-4. 9
소극장 산울림
안석환 한명구 김명국
정재진 이소영
*스기나미구, 시즈오카 시 초청
귀국 기념

20회

2001. 9. 20-9. 30
일본 시즈오카 예술극장
안석환 한명구 김명국 정재진 고태완
*BESETO 연극제 초청

21회



2002. 5. 24-7. 28
소극장 산울림
박용수 한명구 정재진
전국환 노혜란

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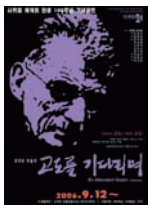


2003. 6. 3-9. 21
소극장 산울림
박용수 한명구 정재진
전국환 노혜란

23회

2005. 3. 11-5. 8
소극장 산울림
박용수 박상종 한명구 전국환
정재진 박규남

2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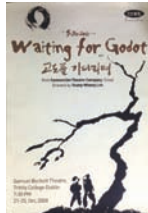
2006. 9. 12-12. 3
소극장 산울림
전국환 이영석 박상종
전진우 정기용

25회



2007. 8. 21-10. 21
소극장 산울림
전국환 이영석 박상종
전진우 정기용

26회



2008. 10. 21-10. 25
더블린 베케트센터
한명구 박상종 전국환
박윤석 김민석
*한국-아일랜드 수교 25주년
더블린 베케트센터 초청

27회



2008. 11. 18-12. 28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전국환
박윤석 김민석

28회

2009. 8. 27-8. 29
일본 도가예술공원 창조교류관
예술극장
전국환 한명구 박상종 박윤석 윤준호
*SCOT SUMMER SEASON 2009 초청

29회

2009. 9. 4-9. 5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전국환 한명구 박상종 박윤석 윤준호
의정부 예술의전당 초청

3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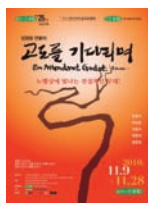
2009. 9. 8-11. 1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전국환
박윤석 윤준호

31회



2010. 10. 22-10. 31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한명구 박상종 이문수
박윤석 윤준호
*서울연극올림픽 공식 초청

32회



2010. 11. 9-11. 28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이문수
박윤석 윤준호

33회



2011. 10. 13-11. 16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이호성
박윤석 윤준호

34회



2012. 10. 13-11. 4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이호성
박윤석 윤준호

35회



2013. 10. 8-11. 24
소극장 산울림
이호성 박상종 정나진
박윤석 김형복

36회



2015. 3. 12-5. 17
소극장 산울림
정동환 정재진 이호성
박용수 송영창 안석환
이영석 한명구 박상종
김명국 정나진 박윤석
김형복
*소극장 산울림 개관 30주년
특별기념

37회



2016. 4. 5-5. 1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정나진
박윤석 정원

38회

2017. 4. 7-5. 7
소극장 산울림
한명구 박상종 이호성 박윤석 정원

39회

2018. 4. 19-5. 20
소극장 산울림
김정호 박상종 이호성 박윤석 이민준

역대 해외공연 리뷰

「고도를 기다리며」— 서구와 한국의 공연

마틴 에슬린❖

“오늘 본 한국 버전은 이러한 면에서 더 진전이 된 놀라운 연극이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을 실제 광대로 만들어 세심하게 조형된 춤에 가까운 움직임을 부여했다. 이것은 부분들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심오한 내면의 진실을 내포함으로써 결국 이 극을 우리시대의 중요한 신화로 만들었다. 언어의 표현에 의한 문자 그대로의 진실성보다는 본질적으로 말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어떤 유형보다 더 진실한 그런 신화를 창조했다.

이런 높이 고양된 형식은 한국 공연의 전통, 추상적 접근을 강조하는 극동의 공연 전통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여겨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접근은 베케트의 의도에 잘 들어맞는다.”

“한국 공연에서 내가 의문을 갖게 된 부분은 이 극의 마지막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으로 알려져 왔다. 이 극의 구조는 주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1막이 거의 정확하게 2막에서도 되풀이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2막도 1막과 똑같이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무대지시가 수반되는 ‘가자’로 끝나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2막은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로 끝이 난다. 두 부랑아가 나무 양쪽에서 하나의 윤곽을 그리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성화같았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의 종결을 의미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대칭의 정확성과 두 인물의 무용적인 움직임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어떤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렉키의 장광설에서 발견된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신의 무관심이 있다.

이 공연에서 그 장광설이 다루어진 방식은 딱 마음에 들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지루하게 단순하고 기계적인 대사 처리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유럽연극에서 그 대사는 낮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거칠어져 광적일 정도로 난폭하게 끝이 난다. 나는 이번 연극에서의 마치 렉키를 멈추지 못하는 기계처럼 다룬 대사처리 방식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렉키는 크고 강한 인물로, 포조보다 더 큰 인물로 보이도록 한 발상은 썩 훌륭한 것이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공연에서 렉키는 매우 작고 포조는 훨씬 큰 인물로 묘사된다.”

“나는 임영웅씨의 아름다운 연극에 감사한다. 이 아름다운 연극은 내 기억창고 속에 보존될 것이며 그것은 이 훌륭한 연극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날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 공연을 가장 훌륭한 다른 어떤 공연들만큼 생생하게 오랜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것에 감사한다.”

❖ 마틴 에슬린 (Martin Esslin, 1918-2002)

헝가리 태생의 영국 연출가 겸 평론가. 1962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 ‘부조리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 공연
—1990.10.1~ 3. 더블린 프로젝트 아트센터

한국의 고도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영원히 계속될 기다림의 게임을 하는 두 배우의 연기를 감상하는 순수한 즐거움만으로도 이 작품은 불만한 가치가 있다.”

AMY GARVEY, 1990.10.2. Irish Press

선명하게 전달된 연출력!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으로 각각 분한 정동환과 송영창의 연기는 놀랄 만큼 참신한 활력을 지니고 있으며, 박용수는 위압적으로 군림하는 포조로, 정국진은 소년으로서 인상적인 연기력을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베케트의 국경을 초월한 이 작품의 분위기와 긴장감이 선명하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연출자인 임영웅의 예술적 역량에 그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DESMOND RUSHE, 1990.10.2. Irish Independent

활발하고 감동적인 연기!

“임영웅의 연출은 희극성과 비극성을 공유하고 있다. 기다림은 초조하고 고통스런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희망의 설렘과 사라짐은 어두워진 달빛 조명으로 끝나는 종결부에서의 치밀한 처리에 의해 깊은 비애감을 전달해 주었다.”

DEREK WEST, 1990.10.2. The Irish Time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고도>

“베케트의 연극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좋은 연극에는 배우의 대사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BARBARA CLINTON, 1990.10.2. Evening Press

1994년 폴란드 공연—1994.6.17~ 20. 폴란드 그단스크 비브제제 극장

흔치않은 좋은 기회 — 한국인 고도를 기다린다

“연출 임영웅은 아주 일관성 있게 베케트가 바랐던 주인공상을 회화적으로 표현, 극의 극치를 만들어간다. 블라디미르(이호성)와 에스트라공(송영창)은 채플린과 같은 걸음걸이, 팬터마임 같은 제스처를 동반한 우습고 영성한 그들만의 성격을 구축, 표현한다.” _Gazeta Morska, 1994.6.20

관객에게 주는 두 가지 충격! — 이제 마지막 하루, ‘한국의 베케트’

“산울림 극단의 임영웅이 연출한 이 공연은 폴란드 관객에게 확실한 2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무대이다. (중략) 두 번째 충격은 배우들의 새로운 인물 스케치였다. 배우들 역시 무대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의상과 분장 또한 훌륭하였다.” _Dziennik Bałtycki, 1994.6.20

1999년 일본 공연—1999.11.21~ 23. 일본 동경세션 스키나미홀

독창적인 해석, 한국의 <고도>

센다 아끼히코_연극평론가 시즈오카대학 교수

임영웅 연출은 전체적으로 매우 오소독스❖해서 베케트 희곡에 충실하다. 이상한 것을 노리는 취향은 없고, 장치나 조명으로 시각성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세부에는 독창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있다.

❖ 오른손잡이를 의미하는 말로 ‘정석’, ‘정수’를 뜻하는 말

무대는 간소해서 S자 같은 기묘한 모양의 휘어진 작고

가는 나무 한 그루가 중앙에서 있을 뿐이다. 이 나무는 베케트의 희곡에는 ‘시골길. 한 그루의 나무’라고만 쓰여 있어 내가 이때까지 본 <고도>에서는 대개 훌쩍 직립한 나무가 서 있었다. 이번의 한국판처럼 마치 분재(盆栽)처럼 마르고 복잡하게 구부러진 나무는 특이하다.

연출 임영웅에게 이 점을 물어보니까 (1934년생인 이 연출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것은 한국에 흔히 있는 소나무의 형태라고 한다. ‘한국’을 반영한 나무의 형태인 것이다.

(중략)

에스트라공인 안석환이 매력적이었다.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 깊이 있는 연기로 밝은 희극성이 있다.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기다려야지”라고 하면 “참, 그렇지”하고 대답하는 한국어의 대사는 아름답게 음악적으로 반복되어 인상에 남았다. _ 월간 「댄스매거진」 2000년 2월호

임영웅과 〈고도를 기다리며〉의 시간

극단 산울림의 연출가 임영웅과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작품이다. 다소의 과장을 허락한다면, 임영웅은 〈고도를 기다리며〉로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고, 서구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임영웅을 통해 한국의 〈고도를 기다리며〉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렇게 둘은 5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왔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그러했듯, 반평생을 친구 삼아, 각자의 삶에 서로의 삶을 동반한 채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도 이곳에서 오지 않는 고도를, 상대를, 관객을, 그리고 더 많은 공감대를 기다리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시작, 도전 그리고 반복❖

1969년 12월 임영웅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국내 초연하였다. 공연 계기와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9년 임영웅은 『주간 한국』(김성우 국장)에서 개최한 ‘시인만세’라는 행사의 연출을 맡은 적이 있었다. 현역 시인들의 자작시 낭독회였는데, 이러한 행사(진행)를 지켜 본 『한국일보』 정홍택 기자가 연출을 맡았던 임영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당시 새로 설립된 한국일보 사옥(구관) 12층에 350석 규모의 강당이 있으니,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비록 무대가 작고 조명시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극장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임영웅에게는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강당에 카펫까지 깔려 있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관건은 공연 작품 선택이었다. 좁은 무대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적당한 작품을 물색하던 임영웅의 눈에 때마침 들어온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등장인물이 적고 장치가 간단했기 때문인데, 작품의 특성상 〈고도를 기다리며〉라면 좁은 무대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베케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면서 개막 일주일 전에 전 공연이 매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함축된 의미와 연극성)는 만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극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는 이 시기에 연극을 하면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은 참고만 되었을 뿐,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남은 방법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유의 독심으로 해석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현대인을 벌거벗겨 무대에 올려놓고 기다리라고 한 선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생각을 정리해나갔다. 이러한 임영웅의 의도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1973년에 〈고도를 기다리며〉가 재공연되었다. 출연진은 1회나 2회 때와 거의 유사하여, 배우로는 김성욱, 함현진, 김무생, 김인태가 출연했다. 소년 역의 이재인 대신 윤정배가 새롭게 캐스팅 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대의 크기였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연과는 달리 세 번째 공연은 한국일보 소극장이 아닌, 명동 국립극장(現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고도를 기다

김남석_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이 글은 본인의 저서 『한국의 연출가들』(살림, 2004)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국립극단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보완 정리한 원고임을 밝히둔다.

리며)를 넓은 공간에 담아 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 뒤 수차례 반복되는 실험의 일환이었다. 소극장은 배우들의 연기나 표정, 느낌이 직접적으로 교류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어떤 고독감이나 인생의 황량함을 전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내었다. 대극장 공연은 이러한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임영웅은 여기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좋은’ 작품이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다.

한국 연극계에서 흔히 임영웅은 리얼리즘 연출 스타일의 정통적인 계승자로 알려져 있다. 그것과 함께, 원작을 한 줄도 고치지 않는 연출 방식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 줄도 고치지 않는 연출 방식이, 리얼리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둘 사이에는 별반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임영웅 스스로도 자신의 연출 스타일이 리얼리즘에 입

각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살펴야 할 것은 평소 임영웅이 말하는 “연극이 인간을 그리는 예술”이라는 간명한 소신이 아닌가 한다. 그는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연출 스타일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에게서 리얼리즘 작품에 대한 일방적인 경도를 찾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가정이다. 무엇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대표적인 <고도를 기다리며>가 정작 리얼리즘의 형식과 범주를 벗어난 작품이라는 사실은 임영웅이 그 어떤 특정 장르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도 하겠다. 실제로도 <고도를 기다리며>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중시하는 임영웅의 연출 철학에 들어맞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세계가 인정한 〈고도를 기다리며〉

임영웅은 1988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다섯 번째 재공연했다. 그

때 학술회의 참가 차 서울을 방문한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이 임영웅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관람하고 싶어했다. 그는 ‘부조리극(absurd drama)’이라는 명칭을 처음 부여했고, 부조리 연극(不條理演劇)이라는 선구적 저서를 쓴 부조리 연극(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에슬린은 첫날 공연을 문예회관에서 보게 되었다. 같이 참석한 사람은 여석기, 이태주, 오중자 그리고 임영웅이었다. 임영웅은 에슬린의 관람 후 반응을 상상했다. 만일 관람 후에 수고했다고 말하고 가면 그저 그런 것이고, 무대에 가서 배우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에슬린은 재미있게 연극을 관람했고 배우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에슬린은 다음 날 3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소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연회에 에슬린은 A4 용지로 6장 분량의 글을 들고 나타났다. 글의 제목은 <Waiting for Godot, West and Korea>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자신들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비교한 것이었다.

에슬린은 산울림의 무대가 “부드러움과 무용적인 움직임, 그리고 고도로 양식화된 동작으로 베케트가 갖가지 상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극찬했다. 임영웅은 세계적인 전문가의 고풍에 고무되었다.

이후 <고도를 기다리며>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아일랜드 더블린 연극제, 폴란드, 일본에서도 공연되었고 변함없이 좋은 평가와 함께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임영웅이 30여 년 동안 한 작품에 집착하고 연구한 결과이다. 그는 초연 때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듀엣’에 비유했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위주었기 때문이다. 85년 산울림소극장이 개관할 때는 ‘4중주’처럼 느껴진다고 다시 비유했고쳤다. 두 사람 이외에도 포조와 렉키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실내



악’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고도가 내포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는 점차 ‘서양음악’적 특색만이 아닌, ‘동양음악’적 색깔도 가미하게 된다. 이렇게 확장된 상상력이 작품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여러 번 반복해도 의미적 층위가 얇아지지 않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신선함이 퇴색하지 않고 깨달음이 더 한다고 임영웅은 말하곤 한다. 이것이 임영웅이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며>에 매달리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사실 임영웅은 원작에 충실하되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고도를 기다리며>를 내놓아 왔다. 그 변화는 유일한 무대장치인 나무와, 소년의 복장과, 무대 크기의 변화에서 감지된다. 나무는 처음에는 서양 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앙상하고 황량하게 서 있던 나무는 이국의 풍경을 자아냈다. 그러다가 점차 구부러진 소나무 모양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소년의 복장은 한복으로 변화했다. 임영웅은 소년을 천사로 간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왕이면 한민족의 복장을 입히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본래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장소 역시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시간의 흐름이나 고도의 정체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 한국 사람으로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다. 무대의 변화는 공연 여건의 변화와 관련 있지만, 대극장 무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연이나 산울림에서의 공연은 소극장 연극을 지향했지만, 상황에 따라 넓은 무대도 마다하지 않았다.

임영웅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보이지 않는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세계적인 연극의 중심지에서 타자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칭찬과 반응을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서 오증자의 번역이 단단히 한몫 했다. 오증자의 번역 과정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한국어 텍스트를 얻기 위한 ‘말들의 정제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오증자는 술한 공연을 객석에서 지켜보면서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찾아 나갔고, 단련된 시간들과의 싸움 끝에서 하나의 단어와 문장을 얻기도 했다. 사금을 채로 건져 올리듯, 언어를 길어 올린 셈이다. 임영웅은 연출 작업을 ‘숨은 그림 찾기’에 즐겨 비유한다. 텍스트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형상화하는 작업이 ‘연출’이라는 것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희극적인 그림’을 숨긴 작품이다. 블라디미르는 ‘아장아장’ 걸어 나오고, 에스트라공은 구두를 벗지 못해 찢절 맨다. 임영웅은 둘의 행동이 ‘의도적인 연기’라고 확신하고 이 장면을 연출한다. 나이 많은 어른이 ‘아장아장’ 걷는 것은 의도적일 수밖에 없으며 몇 번에 걸쳐 힘을 주어도 벗겨지지 않는 구두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상식 밖의 행동을 일부러 벌이고 있다. 이것은 <고도를 기다리며> 전편의 이야기가 이들의 놀이(연기)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설정에 해당한다. 작품은 처음부터 천진난만한 놀이에 몰두하는 이들을 그려내야 한다고, 숨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 지시에 수긍할 경우, <고도를 기다리며>는 유쾌한 사건으로 가득 찬 작품이 된다.

반평생을 기다렸던 <고도를 기다리며>의 새 출발

임영웅 연출과 그의 출연진(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번역자인 오증자에 의해 <고도를 기다리며>는 지난 50년 동안

점차 서구의 것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개인이 능력 때문만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독심 없이는 불가능한 경험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독심을 따라 누적된 시간은 결국 한 작품의 국내 정착과 창조적 수용 그리고 새로운 의미부여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오래 전에 지쳐 중단할 법한 시간인데, 임영웅의 독심은 이를 견뎌내고 재창조의 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었기에, 결국 50년 이후의 새 출발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깊이가 더해진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공연의 성패를 떠나,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온 연극’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묘한 일치는 궁극적으로 연극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연극에의 순교자,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영석_인천대학교 교수

베케트의 삶,
현대 문학과 연극에
일획을 긋다.

사뮈엘 베케트는 누구인가? 베케트(1906
년 4월 13일~1989년 12월 22일)는 아일랜드에
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사망한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극작가이다. 베케트의 문학

과 연극에는 그의 고향인 아일랜드 풍경과 프랑스 20세기 소설가 프루스트에 대
해 쓴 「프루스트」의 세계가 하나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베케트는 프랑스어
와 영어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썼다. 그는 직접 프랑스어로 쓴 3부작 소
설 「몰로이」「말론 죽다」「이름불일 수 없는 자」로 주목받고, 「고도를 기다리며」
로 프랑스 문단과 연극계에서 크게 호평을 받는다. 이중언어작가인 베케트는 작
품에서 세계의 존재양식을 보여주고, 세계 내에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의 절망적인 조건, 탄생으로 시작된 인간의 비극을 극히 절제된 언어로 묘사
하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특히 간결한 글쓰기에 기반을 둔 신선한 문체와
뛰어난 연극적 감각이 압권이다. 1969년에 베케트는 소설과 연극의 형식의 쇄
신을 통해서 현대인의 ‘궁핍’을 ‘고양’으로 변형시킨 공로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로 선정되었지만, 노벨상을 하나의 재앙으로 판단하여 노벨상을 받으려 가지 않
았고 일체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베케트는 2차세계대전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성공을 거둔 부조리극에서 인
간 존재의 공허함과 비극성을 탐색한다. 1953년 1월 프랑스 파리의 바빌론 극장
에서 공연된 「고도를 기다리며」는 새로운 연극의 출현을 알리며 유례없는 성공
을 거두게 된다.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연극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부조리극,
신연극, 전위 연극, 무의미연극, 추상연극, 조롱연극, 반연극이 탄생된 것이다.
관객들은 베케트의 부조리극, 특히 「고도를 기다리며」에 열광한다. 왜 극적 서사
도 없고,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독히 심심해 보이는 이 연극에 관객
들은 열광할까? 베케트가 이 연극에서 보여준 혁명성은 어디서 올까? 이해하기
힘든 그의 연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베케트
에 열광하는 연극인들은 셰익스피어가 베케트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극찬을 하
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20세기에 쓰인 시(詩)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라고 평
하기도 하며, 심지어 서양의 연극을 베케트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한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들은 인간이요.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당신들
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인간이요”라는 대
사언어를 통해, 그의 궁극적인 질문이 인
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베케

트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해, 인간의 한계와 비극에 대해, 인간과 세계의 부조리
한 관계를 말한다. 시간을 고통스러워하고, 시간을 말하며, 권태의 시간을 겪는
베케트의 인간은 궁극적으로 실패, 고독, 절망, 비극, 공허, 기다림의 주제를 구

현한다.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특히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독하게 떠도는 현대인의 존재양식을 탐색한다. 그는 단지 나무 한그루만 있는 황량한 시골길에서 오지 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는 등장인물을 그린다. 고도의 정체성과 극공간간의 정체성과 등장인물의 정체성은 모호하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는다. 베케트 자신도 고도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알았다면 작품에서 밝혔을 것이라는 해명하지만, 고도는 다양한 의미(신, 구원, 자유, 부재, 기다림 등)로 해석되었다. 브루노 클레망과 프랑수아 누델만에 따르면, 고도가 천국이라면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연옥이다. 연옥, 그곳은 다른 곳으로 이행되기 전의 기다림의 공간이다.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문제 삼은 것은 희망과 공허함이 공존하는 인간의 기다림이다.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다면, 베케트는 ‘나는 기다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극의 전개에서 전락적 거점인 기다림은 무한히 실패로 끝나지만 극의 동력이다. 이처럼 베케트의 비극적 세계관은 자아를 상실한 인간존재의 헛된 기다림으로 표현된다.

**몸짓언어,
무대에서
기다림과 놀이를 표현하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연극성은 무엇보다 몸짓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베케트는 연극이 시청각 언어라는 장르 인식을 몸짓언어로 실천한다. 베케트에게 신체는 기다림이라는 극작품의 주제가 되고 연극의 육체성의 자리가 된다. 우리는 베케트가 익살극의 광대 몸짓으로 웃음을 주고, 심각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잔혹한 몸짓언어를 보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훼손된 몸은 연극의 몸이 된다.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들 통해 인간의 비극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고통스러운 몸짓은 해체된 자아의 재인식에 통합된다. 이렇듯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표현하는 신체언어에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이들의 몸짓언어에는 고통과 잔혹성의 코드가 들어 있다. 신체의 해체와 죽음에 대한 끝없는 베케트의 탐색은 베케트를 바타유, 셀린, 사드, 아르토와 같은 공포와 악에 대해 연구한 작가들의 반열에 들게 한다. 장르의 존재양식과 표현양식을 중시한 베케트는 공연예술에서 감각 기관의 통합적 지각 대상인 몸짓언어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재발견한다.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몸짓언어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과 놀이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에게 놀이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게 해주고, 지루한 시간을 흘러 보내게 하며,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주체와 타자를 탈주시키는 동시에 소통시키는 요소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몸짓을 통해 어린아이의 놀이를 표현하고, 지껄이는 말장난을 통해 질문과 대답의 놀이를 한다. 블라디미르는 ‘노니가 시간이 빨리 가구나.’라는 대사에서 놀이의 세계를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이들이 함께하는 놀이는 기분전환이고, 심심풀이고,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주체와 타자가 참여하는 놀이는 실존을 넘어 공동체로 가는 길이다. 베케트는 놀이를 존재의 욕망에 연결시키고, 연극의 본질을 탐색하는 기본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의 놀이는 뻔해 보이는 놀이이지만 존재가 걸린 내기이고, 존재를 표현하는 놀이이다. “나는 놀이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놀이의 존재론이 나타난다.

**해진 양피지에
의미와
무의미를 쓰다.**

베케트는 ‘언어란 무엇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전위적인 작가이고,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를 탐색한 작가이다. “이성은 이미 한없이 깊은 영원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아야.”라고 말하는 에스트라공의 대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의심한다. 심지어 블라디미르는 “인간은 모두 미치광이로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베케트는 코기토의 질서를 해체하여 인간의 내면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는 존재의 이질적이고 차이가 있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부동성을 지향하는 인간 존재의 스펙터클을 보여주기 위하여 새로운 연극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물론 베케트는 단순히 무의미한 언어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그가 연극에서 사용한 언어는 거칠고 투박한 언어는 음악성이 담긴 시적인 세계를 생산한다. 베케트는 수사학적으로 치장을 하지 않은 험박은 언어를 통해 존재와 사

건을 구성한다. 그는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면서 언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사실도 거짓도 아닌 허구의 언어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고,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에서 허구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언어와 사건의 경계, 언어와 허구의 경계를 넘어 장르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부재의 글쓰기를 통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언어는 끝없이 무화되고, 동시에 탈영토화를 통해 끝없이 새로운 존재의 틈을 드러낸다. 이처럼 그는 모순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모순은 반대되는 개념의 공존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무의미를 동시에 생산한다. ‘아무도 오지도, 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끔찍한’ 무대 공간에서 베케트의 등장인물은 기다림의 실존 속에서 ‘고도의 신화’를 탄생시킨다. 실존의 세계를 보여주는 베케트의 ‘현존재의 연극’에서 우리는 ‘여기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언어와 존재에 담긴 새로운 의미와 무의미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베케트는 연극에서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질서보다는 혼돈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충실히 따른 전통 극작가들이 로고스 중심의 의미를 생산하는데 비해,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성의 무기력을 의미하는 불연속, 단절의 시퀀스를 사용하여 각각의 장면들이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는 갑자기 끊어지는 사건의 흐름이나 의미가 대립하는 모순적인 장면들을 사용하여 사건의 우연성과 이질성을 보여준다. 이 연극에서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나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인과론적인 구속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와 필연의 세계가 사라진다. 베케트는 연극 담론의 비연속적 연쇄에 죽음, 침묵, 부재, 결여 등을 내재화시키고 있고, 실존하는 인간 주체의 구조를 대파국의 구조로 그리고 있다.

천개의 고원을 통째로 담은 형이상학적 형식을 그리다.

베케트의 문학과 연극에서 존재와 세계의 부조리를 담은 형식적 구조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베케트는 무질서를 수용하는 형식을 찾는 것이 오늘날 예술가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형식이 내용이고, 내용이 형식이다. 베

케트는 소설과 연극에서 단순한 형식과 간결한 문장을 통해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를 생산한다. 그의 서사에는 계열이라는 해체된 형식, 새로운 형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복과 무질서도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는 반복과 순환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관점에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1막과 2막은 반복이고 차이이다. 거시적인 구조적 차원에서 1막의 상황이 2막에서의 거의 똑같이 되풀이 된다. 미시적인 구성의 차원에서도 무수히 반복되는 담론과 블록을 형성하는 해체의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도를 기다리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이다’라는 대사가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연극 자체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자기반영적 연극, 즉 극중극의 세계를 암시하는 대사이다. 연극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연극글쓰기를 시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이처럼 베케트는 끝이 불가능한 반복의 형식과 탈주하는 단절의 형식을 연극글쓰기의 전략으로 삼는다. 베케트는 단절에서 단절로, 반복에서 반복으로 이어지는 인간존재의 스펙터클을 무대에 올린다. 그는 엄밀하고 절제된 작품의 형식에서 반복의 알레고리와 차이의 형상을 구현한다. 베케트는 중심이 없고, 다방향에서 접속되고 동시에 단절되는 고도의 세계를 통해 21세기에도 새로운 (무)의미를 여전히 생성하고 있다. 이처럼 베케트에게 형식은 천개의 고원을 내적 논리에 따라 전개하는 형이상학적 형식이 된다.





작—사뮈엘 베케트 Samuel Beckett

프로필 _ 4페이지

연출—임영웅 Lim Young Woong

프로필 _ 2페이지

번역—오증자 Oh Jeung Ja

샘터사 주간 역임 | 서울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

저서 『완전불어』 『프랑스어 1, 2』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

역서 『바다의 침묵』 『에밀』 『위기의 여자』 『몽테크리스토 백작』 『레 미제라블』 『고도를 기다리며』 외 다수

무대—박동우 Park Dong Woo

現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연극 〈성〉 〈3월의 눈〉 〈가족〉 〈왕위주장자들〉 〈미디어〉 〈겨울이야기〉 〈사회의 기동들〉 외 다수

뮤지컬 〈영웅〉 〈명성황후〉 〈아리랑〉 〈신과 함께〉 〈나폴레옹〉 〈서편제〉 외 다수

오페라 〈루살카〉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파우스트〉 외 다수

기타 2018 평창올림픽 계폐회식 예술감독

수상 2014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혁신상

2014, 2000, 1991 동아연극상 미술상

2012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무대미술상

2010 더뮤지컬어워드 무대미술상

2010, 1997, 1996, 1995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2010, 2005, 1995, 1991, 1989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2006 이해랑연극상

200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1998 한국연극 무대예술상

1996 한국연극예술상

조명—김종호 Kim Jong Ho

現 김종호 조명 연구소 대표

연극 〈위기의 여자〉 〈에쿠우스〉 〈아일랜드〉 〈안내의 일기〉 〈어느날의 환상〉 외 다수

기타 2018 예인소극장 기술감독

2014 인천아시아게임 주경기장 매니저 감독

2013 SH극장 극장장

의상—최원 One Choi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고독한 목욕〉 〈기묘여행〉 〈이방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 〈1945〉 〈날보러와요〉 〈맨 프럼 어스〉 〈별무리〉 외 다수

무용 〈더 룸〉 외 다수

창극 〈오르페오전〉 〈몽유도원도〉 외 다수

오페라 〈나비부인〉 〈돈 지오반니〉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외 다수

분장—김유선 Kim You Sun

연극 〈오이디푸스〉 〈리차드 3세〉 〈베헤모스〉 〈로미오와 줄리엣〉 〈헬릿〉 〈렛미인〉 외 다수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팬텀〉 〈엘리자벳〉 〈광화문연가〉 〈오!캐를〉 〈노틀담드파리〉 〈웃는 남자〉 〈미인〉 〈브로드웨이42번가〉 〈명성황후〉 〈킹키부츠〉 〈마틸다〉 외 다수

수상 2010, 2000 한국뮤지컬대상 기술상

조연출—박정희 Park Cheong-euy

연극 〈노예처럼〉 〈기차〉 〈봉순이 언니〉 〈게르니카〉 〈선녀와 나무꾼〉 〈빅토리아 스테이션〉 〈특급호텔〉 〈맥베드(궁극의절정)〉 〈어느 배우의 슬픈 멜로드라마〉 〈스프레이〉

조연출—박경식 Park kyung sik

연극 〈개를 데리고 사는 여자〉 〈Y:미지수의 시간〉 〈낮은 외투〉 〈PRIZE〉 〈건달들〉



만드는 사람들

출연

블라디미르(더블 캐스팅) 정동환 이호성
에스트라공(더블 캐스팅) 박용수 안석환
포조(더블 캐스팅) 김명국 정나진
럭키 박윤석
소년 이민준

스태프

작 사뮈엘 베케트
번역 오증자
연출 임영웅

무대 박동우
조명 김중호
의상 최원
분장 김유선
조연출 박정의 박경식
총괄진행 심재찬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무대감독 신승호 김정빈
조명감독 김용주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박상은
의상진행 전수민
분장진행 이경배 양윤희

무대제작 무대사랑_대표 박인석
의상제작 런던패션_대표 송기준
조명팀 여국군 천세현 손민영 이태금 장재영

영문자막 번역·검토 이재은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최윤영 이송이 김을
마케팅 김효진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변정원 조영채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운
임소영 정기웅 활지연

포스터디자인 김솔
응용디자인 오드커뮤니케이션
_디자이너 임혜영
언론홍보영상 오슬로 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인쇄 오드커뮤니케이션

연습·공연 사진 나승열
프로그래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래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이선영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손윤희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제작 극단 산울림
제작총괄 임수진
기획팀장 정원
기획보조 박은비

주최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상열
사무국장 오현실
기획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박성호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승이 김울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영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이종무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알리바이 연대기〉



주인영

〈콘서트-동의〉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빙화〉
〈한여름 밤의 꿈〉



김수아

〈빠의 기행〉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강해진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조남용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남만이 갖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극단 산울림, 50년의 역사와 현재



1. 제1회 '산울림의 고도, 50년 동안의 기다림'

2019.5.18(토) 오후 4시

출연 | 정동환, 안석환, 심재찬, 박동우

진행 | 김명화

2. 제2회 '산울림의 무대를 빛낸 여배우들'

2019.5.26(일) 오후 4시

출연 | 박정자, 손숙, 윤석화

진행 | 김명화

3. 제3회 '산울림의 현재, 새로운 만남과 시도들'

2019.6.1(토) 오후 4시

출연 | 임수진 극장장, 임수현 예술감독, 이기쁨 창작집단 LAS 대표, 김화림 음악감독 외

진행 | 김명화

티켓 가격 만 원 주최 및 제작 극단/소극장 산울림

토크 콘서트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에게는

'한국 소극장 연극의 신화: 소극장 산울림 30년사'(이진아, 이은경 저, 판매가 25,000원)를 증정해드립니다.

예매처 소극장 산울림(02-334-5915), 네이버예약(<http://bitly.kr/r7fc26>)

소극장 산울림과 함께 한

연출가 임영웅 50년의 기록 展

주최  마포문화재단
Mopo Cultural Foundation

협력 극단/소극장 산울림, 디자인 두하

문의 마포아트센터 (02)3274-8600

2019. 5. 7. (화) — 5. 25 (토) 일, 월 휴관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III



국립극단

연출 최진아

출연 박상중 강해진 김수아
남수현 성여진 윤서진
이수미 이준영 이호철
조남웅 최자우

작
백하룡

뼈의 기행

무대 손호성
의상 김미나
음악·음향 이승호
분장 장경숙

조명 김성구
움직임 이경은
영상 윤민철
소품 김교은

2019.5.31 - 6.16

백성희장민호극장

SHINSEGAE 푸른터넷
서울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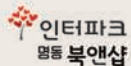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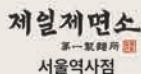
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02-6004-7391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789-2778



매콤순살닭튀김小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02-774-2828



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

070-7017-6404

SHINSEGAE
DUTY FREE
韩际新世界免税店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강남점 | 인천공항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www.ssgdfs.com | 고객센터 1661-8778



고도 씨가 보낸 거지? 오늘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내일은 틀림없겠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